

'BTS 진 입대' ... CNN "새로운 시대 진입"

CNN등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입대를 비중 있게 전했다.

진은 13일 육군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이에 CNN, AP, AFP 등 세계적인 언론들은 훈련소가 있는 경기도 연천에 취재진을 파견해 진의 입대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진이 "새로 깎은 머리와 함께 총 18개

월의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고, CNN은 "맏형 진의 입대로 BTS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영국 BBC 방송 등은 진이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 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팬들이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맏형 진원 안) 입대 현장에 모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사진=방탄소년단 공식 SNS

을 소개했다.

이들 언론은 "그동안 BTS 등 연예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부여할지를 두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벌어졌지만 진 본인이 입대를 선택했다."며 다른 멤버 6명도 곧 입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진이 입대한 훈련소가 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BBC는 진이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 약 30명과 한 방에서 생활하게 되며,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며, 화생방 훈련에서 가스 실을 체험하고, 실탄 수류탄도 다루게 되며, 군 생활 동안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도 버텨야 할 수 있다고 '경험자'의 증언

방시혁·세븐틴, 'LA3C' 문화홍보대사상 공동 수상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그룹 세븐틴이 한국·아시아와 미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의 해머뮤지엄(The Hammer Museum)에서 개최된 'LA3C' 페스티벌에서 'Building K-ulture Bridges: Culture Ambassador Award' (문화홍보대사상)을 받았다.

'LA3C'는 빌보드(Billboard), 롤링스톤(Rolling Stone) 등 미국 대표 음악 매체를 산하에 끈 펜스키 미디어 그룹(Penske Media Corporation)이 주최하는 페스티벌이다.

방시혁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음악과 아티스트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의 팬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하이브의 노력에 대한 응원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더 높은 퀄리티의 음악과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라며 "오늘 이 자리가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풍성한 문화적 영감과 비전이 교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LA3C' 페스티벌에서 문화홍보대사상을 수상한 방시혁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그룹 세븐틴. 사진=LA3C

세븐틴은 "올해 몇 달에 걸쳐 서울, 미국, 캐나다, 동남아, 일본까지 다양한 곳에서 투어 공연을 하면서 팬 분들과 호흡했다.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라며 "다양한 문화권 사이의 교류가 더 확대되는 데 저희 세븐틴도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헤어질 결심',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



▲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 사진=CJ ENM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의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제80회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 기자협회(HFPA)는 12일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Best Picture Non-English Language) 부문 후보에 한국의 '헤어질 결심' 등 5편을 선정했다. 골든글로브는 예전의 '외국어영화상' 명칭을 '비영어권 영화상'으로 바꿨다.

'헤어질 결심'과 경쟁을 펼칠 나머지 영화는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독일), '아르헨티나, 1985' (아르헨티나), '클로즈'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 'RRR: 라이즈 로어 리볼트' (인도) 등이다.

'헤어질 결심'은 변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멜로 스릴러다. 뉴욕타임스의 수석 영화평론가인 마놀라 다기스는 앞서 <헤어질 결심>을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10편에 선정하기도 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이 영화상은 지난해 HFPA의 인종·성 차별 논란, 운영진의 부정부패 의혹 등이 불거지며 할리우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됐고, 생중계마저 중단됐다. 올해에는 NBC 방송이 HFPA의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등 혁신 작업을 수용해 라이브 중계를 재개하기로 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